

2015. 10. 12. ~ 10. 18. 주간

55
VOL

전남농업정보

주간 기상전망

농작물 재배 동향

2016년 마늘, 가을무 재배의향

농작물 출하 및 가격동향

양념채소, 엽근채소 가격동향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OECD-ASEAN-농식품부 공동 컨퍼런스 개최
전남도, 일본에서 2,429천불 수출 계약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정보

탐과채 딸기 현장컨설팅 실시
보리바이러스병, 파종 전부터 관리해야
천연기념물 제주흑우 산업화 방안 찾는다
블루베리 국산 배양묘 확대 보급 청신호!
천적유지식물 활용 해충방제 쉽게 한다

정책동향

농지연금 농지면적 가입기준 폐지
농촌관광, ICT와 만나 새롭게 도약하다

해외 농업정보

인도네시아, 도시인들의 유기농식품 소비 증가



요 약

☼ 주간 기상전망(기상청)

-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음.
-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2~15도, 최고기온: 17~23도)보다 조금 높겠음.
- 강수량은 평년(0~5mm)보다 적겠음.

☼ 농작물 재배 동향(농촌경제연구원)

- 마늘, 2016년산 마늘 재배의향면적은 전년 대비 7% 증가
- 가을무 재배면적 작년보다 3% 감소

☼ 농축산물 출하 및 가격동향(농촌경제연구원)

▶ 양념채소 : 건고추 · 마늘

- 건고추 : 600g당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8,670원)과 평년(9,320원)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
- 마늘 : 산지가격 상승으로 전월 대비 강보합세인 4,600~4,900원/kg

▶ 엽근채소 : 무 · 감자

- 무 : 가락시장 평균 도매가격은 7,000~9,000원/18kg 수준으로 평년(11,590원)보다 낮은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감자 : 전월 대비 약보합세인 17,000~22,000원/20kg으로 전망

☼ 전남 시·군 농정 동향(시군농업기술센터)

- ▶ 여수시, 벼 수확 일손 돕기에 나서
- ▶ 곡성명품농업대학, 친환경자연농업 현장교육
- ▶ 군, 여주 2개월 더 탄다.
- ▶ 신안군, '신안섬마을 요리경연대회' 참가자 모집

☼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농림축산식품부)

- ▶ OECD-ASEAN-농식품부 공동 컨퍼런스 개최
- ▶ 전남도, 일본에서 2,429천불 수출 계약
- ▶ aT, 인천시 우수 농식품으로 상하이 문을 두드리다

☼ 농업기술정보(전남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

- ▶ 한국 차산업의 꿈나무, 보성 어린이 영재교육 차 융복합프로그램 운영
- ▶ 탐과채 딸기 현장컨설팅 실시
- ▶ 보리바이러스병, 파종 전부터 관리해야
- ▶ 천연기념물 제주흑우 산업화 방안 찾는다
- ▶ 블루베리 국산 배양묘 확대 보급 청신호!
- ▶ 천적유지식물 활용 해충방제 쉽게 한다
- ▶ 전라북도 육성 안개꽃, 스타티스 연일 최고가 행진

☼ 정책동향(전라남도, 농림축산식품부)

- ▶ 승마축제, 말산업 활성화와 승마 대중화 유도
- ▶ 농지연금 농지면적 가입기준 폐지
- ▶ 농촌관광, ICT와 만나 새롭게 도약하다.

☼ 해외 농업정보(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인도네시아, 도시인들의 유기농식품 소비 증가
- ▶ 일본, 식물달걀에 본격적 투자 개시
- ▶ 해외 곡물시장 시황(시카고 선물거래소)
 - 미국산 밀 선물가격은 세계적 밀 풍작으로 인한 공급이 랠리를 이어가는데 방해 한 것으로 보임. 미국농무부(USDA)의 월간 수급보고서는 2015/16 밀 기말재고량이 낮을 것으로 전망함. 이집트는 러시아와 루마니아로부터 밀 수입을 하고 있으며 미국산은 체결 소식이 없는 것으로 보고됨.
 - 옥수수 선물가격은 월간 곡물 보고서에서 미국내 생산 및 재고량이 예상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되어 보름 래 낮은 가격 수준을 기록 하며 하락 마감함. 중서부 지역의 우호날씨 전망은 보다 나은 수확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어 가격에 하방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됨.
 - 대두 선물가격은 기존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대두 생산량보다 USDA의 국내 생산 추정을 낮게 전망함에 따라 상승 마감함. 브라질 정부는 2015/16 대두 공급량이 약 1억 톤에서 1억2백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함.

☞ 사업신청 및 홍보안내

▶ “쌀의 다양한 효능과 건강 지킴이” 특별전시

- 목 적 : 우리의 주식인 쌀의 종류 및 다양한 효능을 생산자 및 소비자들에게 보여 줌으로서 소중함과 가치를 일깨우며 농촌진흥청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함
- 주 제 : 『쌀의 다양한 효능과 건강 지킴이』
- 기 간 : 2015. 10. 12. ~ 10. 22.(2주간)
- 장 소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관 2층 특별전시관
- 내 용
 - 벼 품종 : 최고품질벼, 기능성벼, 난장이벼 등 생물 20여 품종
 - 벼 종자 : 흑·백·적·녹미 등 다양한 종자 15종
 - 쌀 가공품 : 쌀을 이용하여 만든 가공품 25종
 - 브랜드 쌀 : 전국 유명 브랜드 쌀 12종
 - 쌀의 정보 : 벼 농사의 유래, 쌀과 우리의 문화, 논농사가 주는 혜택, 벼의 일생 및 형태, 쌀의 영양적 우수성 등

▶ ‘벼가 도복했다’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 농식품부는 한글날을 기념하여, 농촌진흥청과 협의를 통해 현장에서 자주 쓰이는 농업용어 가운데 109개를 골라 우선적으로 순화
- 매월 ‘이달의 순우리말 농업용어’를 5개씩 선정하여 해당 단어들을 적극적으로 홍보, 우선 10월에는 흔히 쓰이는 말과 겹쳐 농업 용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한자어 5단어를 선택해 집중 홍보

☼ 주요 농축산물 가격 정보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5. 10. 12.기준/단위 : 원)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율(%)	
		판매 단위	당일 (10/12)	1주일전 (10/0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식량작물	쌀(일반계)	20kg	38,600	39,400	39,800	40,800	40,533	↓ 5.4	↓ 4.8
	콩(백태)	5kg	137,000	137,000	137,000	137,000	192,510	-	↓28.8
	고구마(밤)	10kg	21,800	23,000	25,500	21,050	22,917	↑ 3.6	↓ 4.9
	감자(수미)	20kg	24,800	24,600	24,600	21,400	25,907	↑15.9	↓ 4.3
채소류	배추(고랭지)	1kg	460	520	583	498	743	↓ 7.6	↓38.1
	양배추	10kg	5,300	5,600	6,775	4,415	7,911	↑20.0	↓33.0
	오이(다다기)	10kg	19,000	19,667	24,083	21,723	21,942	↓12.5	↓13.4
	호박(애호박)	8kg	13,200	11,200	16,200	13,800	14,300	↓ 4.3	↓ 7.7
	토마토	10kg	22,200	22,600	25,700	23,500	40,430	↓ 5.5	↓45.1
	무(고랭지)	20kg	8,400	9,600	8,650	11,050	13,690	↓24.0	↓38.6
	당근(무세척)	20kg	34,000	34,400	32,000	46,650	46,937	↓27.1	↓27.6
	건고추(화건)	60kg	826,000	830,000	830,000	874,000	938,933	↓ 5.5	↓12.0
	풋고추	10kg	20,800	19,000	25,750	31,750	37,223	↓34.5	↓44.1
	마늘(난지)	10kg	51,000	48,000	45,400	33,900	36,480	↑50.4	↑39.8
	양파	20kg	28,600	28,000	28,000	10,600	17,627	↑169.8	↑62.3
	파(대파)	1kg	1,870	1,990	1,895	1,120	1,690	↑67.0	↑10.7
	파프리카	5kg	15,400	16,600	27,400	27,700	32,620	↓44.4	↓52.8
방울토마토	5kg	12,600	13,800	15,200	11,950	22,440	↑ 5.4	↓43.9	
과일류	사과(홍로)	10kg	29,600	33,200	37,000	31,333	30,267	↓ 5.5	↓ 2.2
	배(신고)	15kg	40,200	41,400	36,150	27,700	33,817	↑45.1	↑18.9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율(%)	
		판매 단위	당일 (10/12)	1주일전 (10/0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백미	참깨(백색)	30kg	530,000	530,000	530,000	522,000	548,000	↑ 1.5	↓ 3.3
	들깨	45kg	422,000	422,000	422,000	428,000	336,000	↓ 1.4	↑ 25.6
	새송이버섯	2kg	7,800	8,000	8,100	7,450	8,380	↑ 4.7	↓ 6.9
축산물 (소매가)	한우등심	100g	7,609	7,589	7,548	6,763	6,533	↑ 12.5	↑ 16.5
	삼겹살(냉장)	100g	1,846	2,006	2,131	1,754	1,710	↑ 5.2	↑ 8.0
	도계	1kg	4,893	4,866	5,175	5,117	5,657	↓ 4.4	↓ 13.5
	특란	30개	5,684	5,737	5,739	5,865	5,506	↓ 3.1	↑ 3.2
	우유	1리터	2,547	2,547	2,547	2,548	2,353	0.0	↑ 8.2

*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5. 10. 12.기준)

구 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등 락 율(%)	
					전주 대비	전년 대비
큰 소 (600Kg)	암	5,825 천원	5,727 천원	4,651 천원	↑ 1.7	↑ 25.2
	거세	7,174 "	7,287 "	5,460 "	↓ 1.6	↑ 31.4
송아지 (6~7월)	암	2,692 "	2,701 "	1,942 "	↓ 0.3	↑ 38.6
	수	3,357 "	3,425 "	2,512 "	↓ 2.0	↑ 33.6
육우(600Kg)		3,481 "	3,735 "	3,258 "	↓ 6.8	↑ 6.8
젖소수송아지(7일령)		314 "	314 "	26 "	-	↑ 1107.7
돼지(110kg)		313 "	336 "	372 "	↓ 6.8	↓ 15.9
육계(원/kg)		1,568 원	1,515 원	1,706 원	↑ 3.5	↓ 8.1
계란(원/특란10개)		1,216 "	1,279 "	1,308 "	↓ 4.9	↓ 7.0
오리(원/kg)		2,000 "	2,000 "	2,166 "	-	↓ 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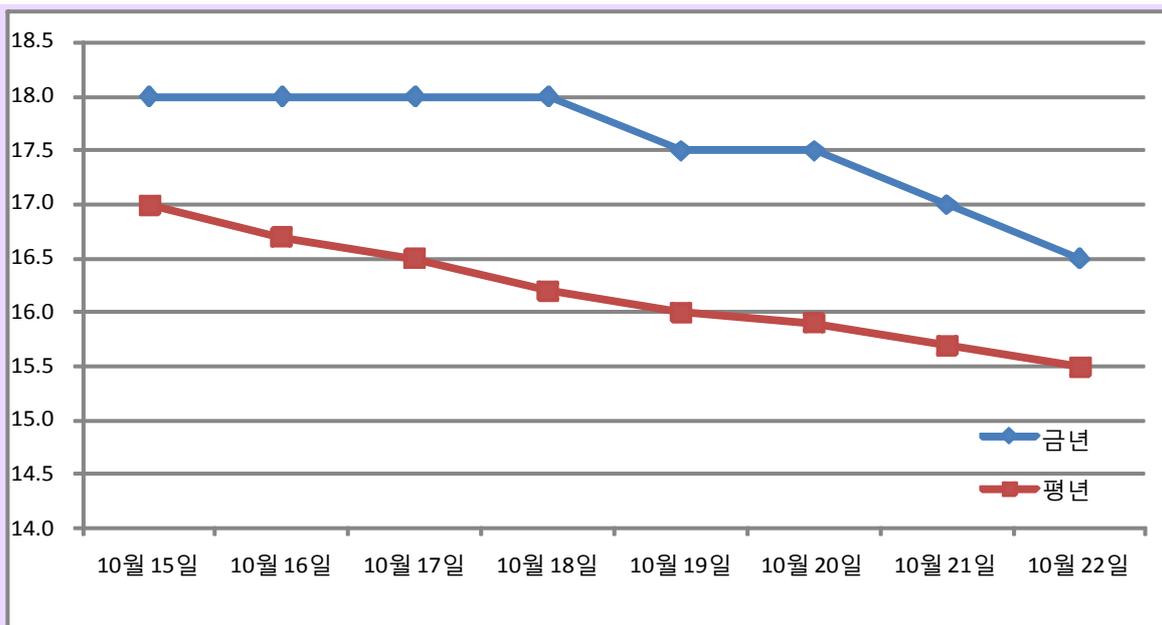
* 자료 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1. 주간 기상전망

(기상청 중기예보 /목포 기준)

일 별	평균기온(°C)			최고기온(°C)			최저기온(°C)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균(계)	17.7	16.3	1.4	22.9	21.6	1.2	12.6	12.2	0.4	0.7
10. 15.(목)	18.0	17.0	1.0	23.0	22.2	0.8	13.0	12.8	0.2	0.9
10. 16.(금)	18.0	16.7	1.3	23.0	22.0	1.0	13.0	12.7	0.3	0.8
10. 17.(토)	18.0	16.5	1.5	23.0	21.7	1.3	13.0	12.4	0.6	0.7
10. 18.(일)	18.0	16.2	1.8	23.0	21.5	1.5	13.0	12.2	0.8	0.5
10. 19.(월)	17.5	16.0	1.5	23.0	21.4	1.6	12.0	11.9	0.1	0.6
10. 20.(화)	17.5	15.9	1.6	23.0	21.4	1.6	12.0	11.7	0.3	0.8
10. 21.(수)	17.0	15.7	1.3	22.0	21.2	0.8	12.0	11.4	0.6	0.9
10. 22.(목)	16.5	15.5	1.0	21.0	21.0	0.0	12.0	11.3	0.7	1.0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평균 기온(°C)>

2. 농산물 재배 동향

마늘·가을 무 재배 동향

- 마늘, 2016년산 마늘 재배의향면적은 전년 대비 7% 증가
 - 2015년산 마늘 가격 상승으로 2016년산 마늘 재배의향면적은 전년 대비 7%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 충청과 영남은 난지형 대서종 재배의향이 높아 각각 4%, 11%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 가을무 재배면적 작년보다 3% 감소
 - 가을무 재배면적은 작년 및 평년보다 각각 3%, 6%감소한 6,952ha로 추정된다.
 - 지역별로는 경기·강원 및 영남이 2%, 충청이 6%, 호남이 3%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최근 2년간 가을무 출하기 및 금년 파종기 무 가격 약세로 농가들이 재배면적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 가을무 중에서 외대무 재배면적은 증가하지만 김장용으로 이용되는 다발무 면적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출처 : 농촌경제연구원

3. 농축산물 출하 및 가격동향

양념채소 : 전고추 · 마늘

○ (전고추)

- 10월 화건 상품 600g당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8,670원)과 평년(9,320원)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10월 화건 상품 600g당 평균 산지가격은 전년과 평년보다 낮고, 전월(5,270원) 대비 포함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마늘)

- 10월 난지형 도매가격은 산지가격 상승으로 전월 대비 강보합세인 4,600~4,900원/kg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마늘 수입이 원활치 않을 경우 마늘 가격은 전망치 보다도 상승할 수 있다.

엽근채소 : 무 · 감자

○ (무)

- 10월 무 상품 18kg당 가락시장 평균 도매가격은 7,000~9,000원 수준으로 평년(11,590원)보다 낮은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감자)

- 10월 수미 상품 20kg당 가락시장 평균 도매가격은 저장봄감자 출하량 감소로 작년(16,063원/20kg) 보다 높지만 전월(20,133원/20kg) 대비 약보합세인 17,000~22,0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출처 : 농촌경제연구원

4. 전남 시·군 농정동향

■ 여수시, 벼 수확 일손 돕기에 나서

- 소라면 대곡 친환경 벼 재배 단지서 벼 베기에 구슬땀 -

- 여수시(시장 주철현)는 6일 오전 소라면 복산리 대곡마을 친환경 벼 재배단지에서 올해 풍년농사 달성과 농업인의 영농의욕을 북돋아 주기 위해 벼 베기 일손돕기 행사를 가졌다.
- 이날 행사에는 주철현 여수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농협 관계자와 농업인 등 300여명이 참여해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의 벼 베기 작업에 일손을 거들었다.
- 이날 벼 베기를 실시한 논 의 주인인 대곡마을 서일석(58세)씨는 “그 동안 정성들여 가꾼 벼를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와서 함께 수확하게 되어 기쁨이 두배”라며 “다들 바쁘실 터인데 시간을 내어 도움의 손길을 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벼 베기에 참여한 주철현 시장은 현장의 농민들에게 “벼 농사는 우리가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중요한 생명산업으로, 시에서는 올해 쌀 직불제와 친환경 생산장려금 등 쌀 생산 지원사업에 76억 여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안정적인 쌀 생산과 유기인증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한편, 금년 벼 수확은 이달 25일까지 계속되며, 수확된 일반벼는 11월중에 정부의 공공비축 미곡으로 수매되고 친환경벼는 농협을 통해 학교급식용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 출처 : 여수시농업기술센터

■ 곡성명품농업대학, 친환경자연농업 현장교육

- 기술센터는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1박2일간 제5기 곡성명품농업대학 교육생을 대상으로 괴산, 청주, 함양 일원을 순회하며 친환경자연농업 현장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교육생 일동은 괴산세계유기농엑스포, 충북산림환경연구소, 안의미곡처리장을 견학하며 친환경농업 실천의지를 다졌다.
- 특히 '생태적 삶-유기농이 시민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열리고 있는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현장에서 유기농이라는 테마와 전세계적 웰빙 트렌드를 면밀히 검토·분석하는 등 우리군 친환경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또 교육생들은 유기농 주제관, 동물 복지관, 유기농 미래관을 돌아보며 유기농 이해의 폭을 넓혔다.
- 교육을 마친 교육생(신인수, 명품대회장)은 "1박2일 동안 친환경자연농업에 대해 더욱 심도 깊은 탐구를 할 수 있어 좋았다"며 "친환경은 농약과 화학 비료, 유전자 변형 식품으로부터 우리 건강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먹거리를 생산하는 것으로 생명을 살리는 지름길임을 다시금 깨달았다"고 말했다.
- 한편, 제5기 곡성명품농업대학은 지난 3월 개강해 11월까지 23회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해까지 205명의 농업전문경영인을 배출한 성과를 기반으로 농산물 생산에서 가공, 6차 산업화까지 발전시킬 수 있는 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 있다.

* 출처 : 곡성군농업기술센터

■ 군, 여주 2개월 더 탄다.

- 지역브랜드실용화 사업지원 2중비가림하우스 재배로 노지보다 수확기 연장 -
- 아열대 웰빙 채소로 자리 잡고 있는 여주는 가을 찬바람이 부는 9월이면 잎이 누렇게 변하고 과일이 작아지면서 수확이 마무리된다. 반면 '해찬여주'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강진에서는 아직까지 싱싱하고 모양 좋은 여주가 수확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 강진군(군수 강진원)에서는 3년 전부터 소비자들의 생여주 수요를 감안하여 2중 비가림하우스에 여름 식재하므로서 늦가을인 11월까지 수확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즉, 강진의 따뜻한 기후와 함께 2중 비가림하우스 내에서 덕장으로 재배하므로서 야간온도를 18도까지 유지하여 재배환경을 맞춰준 결과 노지재배에서 수확 마무리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좋은 상태의 여주를 수확하고 있다. 여주는 열대 박과채소로 야간 기온이 17도 이하로 떨어지면 생육이 거의 정지되면서 잎과 과일에 영양분 공급이 중단되므로 황화현상과 함께 식물체가 말라죽게 된다.
 - 강진군농업기술센터 이동근 소장은 '강진여주는 전국적으로 품질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노지수확이 끝나는 시기 후에도 신선한 여주를 찾는 경우가 많아 2중 비가림하우스 재배를 시작하게 되었다.'라며 사업 취지를 설명하였다. 한편 강진군은 올해 전남도로부터 2억여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2중 비가림하우스 재배를 비롯하여 소규모 가공사업, 여주 가공품 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여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데 특히 농업인 가공 식품 사업을 통해 건여주 생산비율을 높여 시장 대응에 나섰던 점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 군은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니즈(needs) 충족과 여주 브랜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예산 확보에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 출처 : 강진군농업기술센터

■ 신안군, '신안섬마을 요리경연대회' 참가자 모집

- 신안군(군수 고길호)은 오는 11월 10일 신안군민체육관에서 열리는 『신안 섬마을 요리경연대회』에 참가할 팀을 10월 2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 11월 10일 열리는 『신안 섬마을 요리경연대회』는 신안의 풍부한 농수특산물을 널리 알리고 지역 대표음식 발굴 육성하기 위해 개최된다.
- 참가팀 중 20개 팀을 선발하여 경합을 펼치고, 상품화 가능성과 요리 완성도 등을 평가해 입상자들을 선정할 예정이다.
- 요리 주제는 '섬 go! 신안의 맛을 찾아서'이며 신안 특산물을 사용하여 신안 섬을 대표하는 향토음식 또는 향토개발음식을 출품하면 된다.
- 참가자격은 요리에 관심 있는 신안군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 신청방법은 신안군청 또는 신안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된 신청서와 요리 설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 10월 23일까지 신안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팀으로 방문 또는 E-mail,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 신안군 농업기술센터는 “경연대회가 단순 이벤트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수상한 요리들을 지역식당과 연계하여 메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리법을 책자로 제작 보급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출처 : 신안군농업기술센터

5. 농림축산식품 수출입동향

■ OECD-ASEAN-농식품부 공동 컨퍼런스 개최

- 농식품부는 OECD와 ASEAN 회원국을 초청하여 아시아의 식량안보 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한국의 농업·농촌의 미래발전을 위한 컨퍼런스를 개최 -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이동필)는 10월 12일(월)부터 15일(목)까지 서울 라마다호텔(삼성동)에서 ▲OECD-ASEAN 식량안보 컨퍼런스, ▲한국의 농업·농촌 미래발전을 위한 OECD-농식품부 공동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OECD-ASEAN 식량안보 지역 컨퍼런스) 10월 12일(월)과 13일(화) 양일에 걸쳐 미얀마, 캄보디아, 태국 등 ASEAN 회원국 고위급(차관급) 공무원이 참석하여 자국의 식량안보 정책을 소개하고 향후 식량안보 확보 방안에 대해 OECD 전문가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 (농업·농촌 미래발전 컨퍼런스) 연이어 14일(수)과 15일(목)에는 OECD 전문가와 농식품부 정책담당 과장, KREI 연구위원 등이 한국의 농촌정책 동향 및 향후 방향, 인력양성 정책, 직불제 개선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최근 곡물가격 상승 등으로 인하여 식량안보는 전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으며, 특히 세계 기아인구의 2/3이 거주하고 있는 ASEAN 지역의 생산성 향상과 식량안보 확보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따라 최근 OECD는 ASEAN 지역 식량안보를 위한 연구 확대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 한국에서도 낮은 식량 자급률, 경지면적 감소 등의 원인으로 식량 안보가 큰 정책 의제가 되고 있으므로 ASEAN, OECD, 한국의 협력강화방안 모색이라는 측면에서 이번 컨퍼런스는 큰 의의가 있다.
- 농업·농촌 미래발전 컨퍼런스에서는 개방화시대에 대응한 한국의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OECD의 선진 논의동향을 참고하고, 여러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식량안보가 전세계가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OECD-ASEAN의 한국 개최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향후 우리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이번 행사와 관련한 사항은 OECD 사무국 홈페이지(<http://www.oecd.org/tad/events/oecd-asean-regional-conference-agriculture-october-2015.htm>)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국제통상팀(044-861-8872), 한국 농촌경제연구원(061-820-2114)으로 문의하면 된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전남도, 일본에서 2,429천불 수출 계약

- 전남도는 지난 10월 6일부터 10일까지 일본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현지 바이어와 수출상담을 통해 총 2,429천불의 수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시장개척단은 광양의 (주)금풍공업 등 총 9개 업체가 참가하여 일본 도쿄와 오사카 지역을 방문했다.
- 도쿄는 일본 제일의 금융과 소비, 교통과 유통의 중심지이며, 오사카는 도쿄와 함께 일본의 2대 경제 중심지로 30만명의 교포들이 거주,

관서지방 수출 거점 확대를 꾀할 수 있는 지역이다.

- 전남도는 시장개척단 파견 전에 참가기업을 대상으로 바이어 응대 상담요령, 시장환경, 경쟁국가 및 시장성에 대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여 업체들 스스로 상담 능력을 갖추도록 했다. 특히, 바이어 발굴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해외 민간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사전 접촉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남지역본부에서 밀도 있게 진행했다.
- 업체별 계약내용을 살펴보면, (주)금풍공업(고지프레스기) 100천불, (주)담양한과명진식품(하루영양바) 300천불, 농업회사법인삼손푸드(주)(황토소금,멸치발효액) 100천불, 농업회사법인 (주)프롬웰(볶음고추장, 청국장) 150천불, (주)대나무건강나라(대잎차) 150천불, 어업회사법인 신안새우젓(주)(새우젓,멸치액젓) 220천불, (주)케이푸드농업회사법인(알로에음료) 159천불, (주)보양(마른미역) 900천불, (주)새롬(헛개·황칠환,음료) 350천불 등 9개 업체에서 총 2,429천불의 수출 MOU를 체결하였다.
- 시장개척단에 참가했던 업체들은 바이어 개별방문 및 집합상담을 실시하였으며, 사전에 발굴된 바이어에게 미리 상담품목을 알려줌으로써 계약성과를 높일 수 있었다.
- 전남도 관계자는 “이 번 시장개척단 파견을 통해 일본의 관동·관서 지방으로 수출 거점 확대를 꾀할 수 있었다”면서 “엔저 영향으로 수출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샘플 제공 등 바이어 합의사항 이행을 통해 시장개척단의 수출 MOU 체결이 실제 선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 마케팅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시장 다변화를 위해 바이어의 지속적인 동향관리로 수출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aT, 인천시 우수 농식품으로 상하이 문을 두드리다

- 수출상담을 통한 300만불 MOU체결, 현장판매 4천5백만 원 성과 달성 -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 김재수, 이하 aT)는 10월 5일부터 10월 8일까지 상하이 명천재부 108광장(上海市七莘路 소재)에서 인천시 소재 대표 식품기업 7개 업체를 초청하여 인천시 우수농식품 판촉행사 및 바이어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였으며, 300만불의 수출협약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45백만원의 현장판매 실적을 거두었다고 밝혔다.
- 이번 행사는 인천광역시가 주최하고 aT인천지역본부와 상하이 aT 센터가 주관하여 (주)대관, (주)한스코리아, 농가식품, 명가식품, 강화천토흑삼, 강화인삼농협, (주)칠선당 등 인천시를 대표하는 7개 식품기업이 참여하였으며, 참가 품목으로는 조만간 대중 수출이 재개될 예정인 전통 김치제품과 홍삼제품(흑삼, 홍삼정, 홍삼차 등), 면류(쌀국수, 비빔면), 전통주(칠선주, 막걸리) 및 스낵, 음료 등 종합식품 등이다.
- 행사기간 중 야외광장에 설치한 판촉매대에서는 김치제품, 홍삼제품, 쌀국수, 전통주를 비롯한 다양한 스낵, 음료 등을 판매하여 총 45백만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중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김치요리 시연 및 체험행사는 큰 인기를 끌었다.
- 또한 10월 6일(화) 오후에 진행된 수출상담회에는 국경절 연휴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식품 수입에 관심이 높은 10개 바이어가 참석하여 김치, 쌀국수, 홍삼제품 등에서 실질적인 수출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현장에서 총 300만 불의 수출협약 양해각서 체결식이 거행되었다.

- 특히 얼마 전 중국 식품안전국가표준 개정작업이 마무리되어 곧 대중수출이 재개될 예정인 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보건식품 사전 위생등록 절차가 필요하여 당장 수입이 어려운 홍삼제품의 경우는 알리바바의 글로벌 직구몰인 티몰국제를 통한 입점상담이 이루어지는 등 품목 특성에 따라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 aT 상하이지사 이상길 지사장은 “중국 국민들의 소득수준 향상과 더불어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믿을수 있는 한국식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인천시 우수 농식품 판촉행사와 같은 지자체가 중심이 된 지역 우수 식품기업의 대중 수출지원 프로그램들이 중국 시장개척 활동에 큰 힘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 aT에서도 지자체와 연계한 대중 시장개척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6. 저비용 · 고소득 농업기술정보

■ 한국 차산업의 꿈나무, 보성 어린이 영재교육 차 융복합프로그램 운영

- 차산업의 미래경영자,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활성화 방법 모색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최경주)은 올해 3월31일부터 보성교육지원청의 영재육성 프로그램 일환으로 보성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고장의 특산품을 소재로 주제탐구를 해나가는 창의·융합 교육 프로그램을 매월 1회 운영 중에 있다.
- 현재 실시 중인 교육 프로그램은 보성영재원 초등학교 6학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6회 동안 했던 내용은 차산업연구소에서 개발한 신품종 차나무 묘목심기, 자라는 과정 관찰하기, 녹차와 홍차 만들기, 색향맛 특성비교, 마시는 방법 등 학생들과 함께 현장 중심 교육을 진행하였다.
- 민선6기 전남도정에 맞는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실현을 위해 전남 차산업활성화 방법으로 차(茶)분야에서 초등학교 학생부터 차나무 바로알기와 차 마시기 시작한다면 가정으로 확대되어 함께 소통하면서 전체 국민 차 소비촉진으로 이어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 앞으로 초등학교 대상 차(茶)분야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미래 차산업경영자의 꿈나무를 키워서 국내 차산업 활성화와 차 소비촉진을 위해 더욱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차산업연구소 최정 연구사는 “국내 차산업활성화를 위해 차 관련 유관기관 모두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차산업의 다각화를 통해 차 소비촉진 방법을 만들어 나가겠다” 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탐과채 딸기 현장컨설팅 실시

- 최고품질 딸기 생산을 위한 수경재배 기술 교육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최경주)은 10월 5일 장흥에서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함께 딸기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탐과채 시범단지 현장컨설팅'을 실시했다.
- 이번 컨설팅은 최고품질 딸기 생산을 위해 장흥군 관산종합복지회관에서 전국 탐과채 딸기 시범단지 농업인 18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 최근 딸기재배가 토양재배에서 수경재배로 전환되고 있으나 전문기술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강진군농업기술센터 최영준 박사의 '현장사례 중심의 딸기 수경재배 기술' 교육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정재완 연구사의 '아주심기 후 초기 관리기술'에 대한 현장상담으로 진행되었다.
- 탐과채 시범단지는 소비자 요구에 부응한 최고품질 딸기 생산을 목적으로 전국 6개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지역에서는 담양, 보성, 장흥 3개 단지에서 68농가(28ha)가 참여하고 있다.
- 특히 담양 새벽이슬공선회(대표 윤일호, 20농가 15ha)는 탐과채 딸기 2.4톤을 홍콩(야타백화점)으로 수출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금년에는 수출물량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 박혜량 기술보급과장은 "지속적으로 현장 컨설팅과 기술지원 통해 최고품질 신선농산물 생산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 출처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 보리바이러스병, 파종 전부터 관리해야

- 매년 발생하는 밭은 병에 강한 품종 적기보다 10일 늦게 파종 -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보리 재배에 큰 피해를 주는 바이러스병을 줄이기 위한 관리 요령을 소개했다.
- 현재까지 보리에 발생이 확인된 바이러스병은 보리누른모자이크병, 보리모자이크병, 보리위축병 등이 있다.
- 올해 3월 보리 주산단지인 남부 지역에서 바이러스병 발생 여부를 조사한 결과, 조사 지역 대부분에서 보리누른모자이크병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영광 일부 지역에서는 70% 정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토양 곰팡이에 의해 전염되는 바이러스병은 한 번 감염되면 방제가 어려울 뿐 아니라 토양 속 곰팡이가 다음해까지 발생해 파종 전부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 보리 바이러스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재배 전 토양곰팡이 서식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땅 속의 곰팡이 존재 여부는 농촌진흥청 작물기초기반과(063-238-5342)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병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는 병에 강한 품종 ‘누리찰’, ‘보석찰’, ‘혜다’, ‘백호’ 등을 파종 적기(중부 지역 10월 중순, 남부 지역 10월 하순)보다 10일 정도 늦게 종자량을 늘려 뿌리는 것이 좋다. 또한, 재배 특성이 비슷하고 병에 강한 밀을 3년~4년에 한 번 돌려짓기 하는 것이 좋다.
- 농촌진흥청 작물기초기반과 이봉춘 박사는 “현재 국내에서 주로 발생하는 보리 바이러스 3종에 대한 동시 진단 방법을 올해 개발했다.”라며, “이들을 매개하는 매개곰팡이의 밀도 측정법, 보독 유무에 관한 정밀 진단법을 추가로 개발해 바이러스병의 직접적인 방제법을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천연기념물 제주흑우 산업화 방안 찾는다

- 농촌진흥청, 13일 '제주흑우 산업화 촉진 학술토론회' 열어 -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제주흑우 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도내·외 전문가와의 연결망을 구축하기 위해 '제주흑우 산업화 촉진 학술토론회'를 13일 서귀포시축협 흑한우명품관에서 연다.

* 10. 13(화) 13시 30분, 서귀포시축협 흑한우명품관

○ 이번 토론회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제주흑우 사업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 김영훈 과장), 제주흑우의 개량과 관리 방안 개선 (한국종축개량협회 정용호 부장), 흑우 연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국립축산과학원 백광수 연구관), 단풍미인 한우 브랜드 사업 성공 사례 (단풍미인한우 영농조합법인 김준영 이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 제주흑우는 우리나라 고유의 한우 품종으로서 2012년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에 등록됐고, 2013년 7월 국가지정 문화재인 천연기념물 제546호로 지정됐다.

○ 2013년 10월에는 남양주에서 열린 슬로우푸드 국제대회에서 '맛의 방주'에는 가축에서는 연산오계와 최소에 이어 제주흑우가 세 번째로 등재됐다. 현재 제주흑우는 45농가가 1,700마리 정도를 사육하고 있다.

○ 올레인산, 리놀렌산 등 불포화 지방산 함량이 특히 높고, 향미, 연도, 다즙성과 기호성에 대한 육질 평가에서도 우수성을 입증했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박남건 난지축산연구소장은 "이번 토론회가 전문가, 축산인, 산업체를 중심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제주흑우 산업화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난지축산연구소에서는 앞으로도 제주흑우가 세계적인 고품격 품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속적인 연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블루베리 국산 배양묘 확대 보급 청신호!

- 충북농기원, 국내 최초 개발 블루베리묘목 통상실시권 실시계약 체결 -

- 블루베리 조직배양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한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원장 차선세)은 지난해 이어 10월 7일에 여덟 번째로 묘목 생산 업체들과 통상실시권 실시계약을 체결하였다.
- 이번에 통상 실시를 체결한 계약업체는 농업회사법인 팔당 및 호트팜으로 총 생산계약 수량은 5만 2천주이다. 이들 업체는 새로 개발되어 특허등록이 완료된 블루베리 주요 7품종에 대한 엽편배양 기술 2건을 이전 받아 조직배양 묘목을 생산하게 되며, 1~2년 이내에 고품질의 국산 배양묘를 국내에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 기능성 과수로 인기가 높은 블루베리는 매년 소비자 수요가 급증하면서 국내 재배면적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신품종에 대한 묘목 수요 및 기존에 재배하던 묘목을 새로운 묘목으로 갱신하려는 재배농가의 수요 증가와 맞물려 지난해 200만 주 이상의 묘목이 수입되는 등 국산 묘목의 자급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 따라서 금번 통상실시 계약 체결을 계기로 국산 배양기술을 이용하여 생산된 블루베리 우량 묘목을 국내에 확대 공급함으로써 수입묘가 차지하던 비율을 10% 이상 대체할 수 있을 것이며, 묘목 생산비용 또한 30% 절감할 수 있어 농가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충청북도농업기술원 허윤선 농업연구사는 “블루베리 국산 배양묘의 품질 우수성 및 관련 영농기술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내 재배 농가에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 출처 : 충청북도농업기술원

■ 천적유지식물 활용 해충방제 쉽게 한다

- 도 농업기술원, 시설원예작물 재배 시 보리 포트 이용 권유 -

- 충남농업기술원은 천적유지식물을 활용한 오이 등 시설원예작물에서의 해충방제 기술 효과를 확인하고 도내 농가를 대상으로 보급에 나섰다.
- 도 농업기술원이 이번에 실험한 해충방제 기술은 보리두갈래진딧물을 접종한 보리 포트를 이용한 기술로, 원예시설 내 진딧물 방제방법으로 천적의 이른 정착을 돕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 도 농업기술원 연구결과 보리두갈래진딧물을 접종한 보리 포트를 시설오이 재배하우스에 투입할 경우 콜레마니진디벌 등 다양한 천적이 유인돼 해충 방제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주 작물에 진딧물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보리의 천적유지식물을 투입해 콜레마니진디벌을 정착시킴으로써 초기에 주 작물에 발생하는 진딧물을 쉽게 방제할 수 있게 해준다.
- 보리를 천적유지식물로 활용할 경우 유도가능한 천적은 콜레마니진디벌 뿐만 아니라 굴파리좀벌, 잎굴파리고치벌, 호리꽃등에, 사마귀류 등 다양한 것으로 확인됐다.
- 보리 천적유지식물은 가장 더운 6~9월을 제외한 나머지 시기 시설 하우스에서 이용할 수 있고 진딧물이 발생하기 전에 투입해 천적을 보호하면서 다른 천적의 먹이원을 제공함으로써 천적의 이른 정착을 유도할 수 있다.
- 다만 주 작물에 진딧물이 많이 발생하면 천적유지식물을 제거해 천적이 주작물의 진딧물을 집중 공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도 농업기술원 최용석 연구사는 “시설원예작물에서 천적곤충을 활용한 해충방제는 농약 사용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보리 천적유지식물 활용을 통해 시설원예작물에 발생하는 진딧물을 친환경적으로 보다 쉽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출처 : 충청남도농업기술원

■ 전라북도 육성 안개꽃, 스타티스 연일 최고가 행진

- 전북농업기술원 국내 유일의 안개꽃, 스타티스 육종기관 -

- 전라북도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안개꽃 신품종 ‘드림송’과 스타티스 ‘핑크크림’, ‘화이트버드’가 서울 꽃 시장에서 연일 최고가에 거래되고 있어 재배 농가들의 소득 향상이 기대된다.
- 2015년 7월부터 현재까지 농수산물유통공사 화훼공판장의 안개꽃, 스타티스 거래물량은 2014년과 비교하면 2배 정도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매가는 1.7배 높게 거래되고 있다. 이는 안개꽃과 스타티스 꽃을 이용한 염색화와 보존화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하여 젊은층 위주로 소비가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 염색화와 보존화는 관상기간이 짧은 생화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발되어 부가가치를 높인 상품으로, 백색의 안개꽃을 분홍색, 적색, 파랑색 및 에머랄드색 등 다양한 색깔로 물들여 판매되는데 시들어도 색깔이 변하지 않아 오랫동안 감상할 수 있다. 특히 보존화는 3년 이상 관상 가치를 유지한다.
- 화훼공판장 중도매인들에 따르면 “전라북도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안개꽃 ‘드림송’ 품종은 물올림이 좋아 색깔이 균일하고 빠르고

예쁘게 염색되기 때문에 다른 품종보다 시장 선호도가 높다.”고 하였고 “스타티스 ‘핑크크림’과 ‘화이트버드’ 품종도 다양한 색깔로 염색화, 보존화로 이용이 가능하여 없어서 못 판다.”라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염색화, 보존화 소비패턴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며, 특히 보존화의 경우는 전망이 밝다.”라고 하였다.

- 2015년 우리 도에서 육성한 안개꽃 ‘드림송’은 전주, 익산, 김제, 남원, 고창 등 9개 시군에 5ha, 20만주가 보급 재배되고 있으며, 스타티스도 전주, 익산, 남원, 정읍 등 6개 시군 25농가 3.0ha가 보급 재배되어 화훼농가 소득 향상이 기대된다.
- 도 농업기술원에서는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염색과 보존화 이용에 적합한 꽃 수확 작업과 수확 후 관리기술에 대하여 농가 기술지원을 지속할 것이며, 고랭지와 평야지를 연계한 연중 균일한 품질의 절화생산 기술개발과 보존화 이용에 알맞은 안개초 신품종 개발을 통하여 화훼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출처 : 전라북도농업기술원

7. 정책동향

◆ 승마축제, 말산업 활성화와 승마 대중화 유도

- 제2회 코리아승마페스티벌, 일산 호수공원에서 10월 23일부터 개최 -

- 농림축산식품부는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에 따른 승마 대중화를 확산하고, 말산업에 대한 인식개선, 말 문화 홍보를 위하여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제2회 코리아 승마페스티벌」을 지원한다.

* (프로그램) 개막식·개막공연, 주니어클럽 챔피언십, 테마 어드벤처, 말 산업전, 국제심포지엄, 말 옥션 등

- 유소년 선수 육성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아시아 무대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한국과 중국을 대표하는 유소년 선수들이 한 자리에서 겨루는 국내외 '주니어클럽챔피언십' 경기가 열리며,

- 개막행사에서는 유럽의 그랑프리 승마선수와 국내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꿈과 사랑'이라는 주제로 대한민국 유소년 승마 유망주의 희망을 그린 승마 테크니컬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 이번행사는 최근 개최된 파리 에펠점핑대회, 뉴욕 센트럴파크홀스쇼 등 대중을 찾아가는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일반대중과 말산업 종사자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종합승마축제로 기획되었다.

- 생산자와 소비자, 대중이 만나는 장을 마련하고 다양한 기업이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말산업 활성를 기대한다.

- 일반인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승마를 직접 타볼 수 있는 체험관 운영, 가족 관람객들이 말과 교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등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다.

* (행사장소) 대중이 많이 찾아오는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으로 선정

□ 아울러 동 행사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말 산업 현황 및 미래 방향을 모색하고자 프랑스승마협회와 말산업 관련 인사를 초청한 국제 심포지엄도 개최된다

* (일시 및 장소) '15. 10. 20(화) 14시,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

○ 이를 통해 말산업의 부가가치를 확보하고 있는 프랑스의 말산업 등 선진국의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말산업 육성정책 수립의 밑거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승마 등 우리나라 말 산업이 가족과 함께 즐기는 대중화로 나아가 6차산업의 대표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향후 말산업 관련 수요확충과 연관산업 성장을 통해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 자세한 내용은 제2회 코리아 승마 페스티벌 홈페이지(www.thekef.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연금 농지면적 가입기준 폐지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시행(10.6)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10.6, 공포·시행되어 농지연금* 가입시 농지면적 제한 기준이 폐지되었다고 밝혔다.

*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 지급('11~)

□ 농지면적 기준을 폐지한 이유는 농지연금 가입기회 확대와 더불어 지역별 농지가격 편차가 큼에도 농지면적 기준으로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지가(地價)가 높은 지역 농업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려는 취지이다.

○ 금번 가입제한 규정 폐지로 65세 이상 농가 중 경지규모 3ha 이상 농가 약 30천호에게 가입기회가 주어질 전망이다.

□ 한편, 그 동안 농지연금의 가입요건 완화, 담보농지 평가율 상향, 이자율 인하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해 왔으며,

○ 이러한 영향으로 가입 건수가 3분기 기준, 전년동기 대비 25% 증가하였고, 누적 5,000건 가입을 눈앞(9월말 4,983건)에 두고 있다.

* 신규가입 : ('14. 9월말) 813건 → ('15. 9월말) 1,020건(25.5% ↑)

< 그 동안 제도개선 사항 >

* ('14) 이자율 인하(4→ 3%), 담보농지 평가방법 개선(공시지가 100% → 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율 70%중 가입자가 선택), 가입비(담보농지가격의 2%) 폐지, 가입연령 조건완화(부부 모두 만 65세 → 가입자만 65세 이상)

* ('15) 담보농지 감정평가율 상향(70 → 80%), 가입시 감정평가 수수료 등 부대비용 납부편의 제공(농어촌공사가 먼저 대납 후 사후에 징수), 이자율 인하(3→ 2.5%)

□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하고 소요 사업비도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농지연금 담보농지 재산세 감면 일몰 연장('15년말 → '18년말, 현재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 반영) 등

** ('15년) 394억원 → ('16년 정부안) 498억원(26.5%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관광, ICT와 만나 새롭게 도약하다.

- 농촌관광 앱(APP)창작 경진대회 결선 진출작 시범 서비스 개시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모바일 중심의 정보 환경에 적합한 농촌관광 정보 제공 및 농촌관광 관련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용한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개최된 「농촌관광 앱(App) 창작경진대회」 14개의 결선 진출작품이 시범 서비스를 개시하였다고 밝혔다.

○ 총 98개 참가팀 중 예선 및 본선심사를 거쳐 선정된 16개 팀이 앱개발을 추진하였고, 그 중 14개팀이 개발을 완료하여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 것이다.

* 일정 : 접수(4.1~5.15) → 예선 및 본선심사(~5.29) → 팀별 앱개발 추진(~9.30) → 서비스 개시 및 소비자 평가(10월) → 결선심사(11.6) → 시상식 개최(11월말)

□ 시범서비스 기간 동안(10월)의 소비자 반응도(다운로드 수)를 결선심사에 반영하여 대상 1팀(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10백만원), 최우수상 2팀(한국농어촌공사 사장상, 팀별 4백만원), 우수상 2팀(한국농어촌공사 사장상, 팀별 2백만원)을 선정할 계획이며, 그 외 입선 작품 5팀에 대해서는 개발비(1백만원)를 지급할 예정이다.

○ 이 대회는 SK플래닛 상생혁신센터(이하 센터)와 협업을 통해 추진하였으며, 개발기간 동안 각 팀들은 센터로부터 기술 관련 멘토링을 받아 앱개발의 완성도를 높였다.

- 결선 진출작품은 농촌관광 관련 정보제공 분야, 교육 연계 분야, 게임 분야, 콘텐츠(사진, 영상 등) 제작 분야 등 다양한 유형의 앱이 개발되었으며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또한, 민간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가치에 따라 참가팀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촌축제, 자연휴양림, 체험농장 등 농촌관광자원과 관련한 공공데이터를 이용하여 앱을 개발하였다.
- 농식품부 이정삼 농촌산업과장은 “모바일 중심의 농촌관광 앱(App)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들의 농촌관광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농촌관광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아울러, SK 플래닛 상생혁신센터 관계자는 “농촌관광 자원정보들과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한 유용한 앱들이 개발된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개발자 육성과 창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8. 해외 농업정보

◆ 인도네시아, 도시인들의 유기농식품 소비 증가

- 최근 인도네시아 경제발전과 중산층 증가로 인해 자카르카 등 대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유기농식품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유기농식품은 주로 자카르타나 수라바야 등 소득 중상위계층이나 외국인이 많이 밀집해있는 대도시의 전문 유통매장, 온라인 등에서 판매되고 있음.
- 유기농식품은 시중가격 보다 비싸지만, 소비자들은 건강을 위해 가격 보다는 품질에 더 높은 가치를 두고 제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남.
- 소비자들은 유기농식품을 통한 건강한 생활방식 등 정보를 얻기 위해 동호회(Indonesia Makan Sayur) 활동을 하며, 자카르타에 위치한 유기농 전문매장에서 제품을 직접 구매하거나 배달함. 유기농식품 유통채널로는 Ranch Market, Organic Club Store, Health Choice 레스토랑 등이 있음.
- 유기농 선호현상은 식품부문뿐만 아니라 화장품, 샴푸, 치약 등의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그러나 과장된 광고 또는 거짓된 정보의 제품이 유기농제품으로 판매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제품구매 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함. 이에 정확한 생산자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유기농제품 사용자들의 모임이 활성화 되고 있음.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일본, 식물달걀에 본격적 투자 개시

- 일본 미츠이물산은 9월 식물 단백질을 이용하여 식품을 개발하는 벤처기업 미국 햄튼크릭푸드사(Hampton Creek Foods, HC)에 약 18억 엔을 출자함.
- 2012년 설립된 HC는 천연 식물 단백질로부터 마요네즈 등의 식품 원료로 사용되는 동물성 달걀과 같은 원료를 양산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기업임.
- HC사가 생산하는 '식물달걀'을 사용하여 가공식품(Scrambled eggs)는 모양과 맛에 있어 진짜 달걀로 만든 요리와 비교하여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동일함.
- HC사는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식물 단백질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달걀의 동물 단백질과 유사한 성분을 찾아 달걀을 대체할 수 있는 식품재료를 생산하고 있음. 이 식물달걀은 100% 콩으로부터 생산된 식물단백질로 만들어짐.
- 미국에서는 식물달걀이 이미 소비자들에게 보급 중임. 월마트, 코스트코, 타겟 등 미국 대형 슈퍼마켓에서는 이미 HC사의 식물 달걀로 제조된 마요네즈와 쿠키를 판매하고 있음.
-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적인 인구 증가와 식품의 고급화가 진점됨에 따라 소, 돼지, 닭, 달걀 등 동물단백질의 수요는 점차적으로 증가되어 왔으며,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동물 단백질 생산에 필요한 가축사료는 곡물자원과 수자원이 필수적이지만 이는 극히 한정되어 있어 대체 식량 개발이 시급한 상황임.
- 미래 식량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해초류와 버섯은 대량생산이라는 큰 과제가 남아있으며, 곤충식량은 심리적인 거부감이 보급확대를 방해하고 있음. 이에 비하여 식물 단백질을 원료로 하는 식물달걀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며,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큰 기대를 모으고 있음.
- 현재 HC사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투자자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음. 미츠이물산 이외에도 인터넷 기업가이자 야후의 공동창시자인 제리양, 홍콩의 거대기업인 호리즌 벤처즈, 싱가포르 정부산하의 테마섹홀딩스 등도 출자하고 있음.
- 금번 미츠이물산 출자규모는 2.26%로 낮은 편이지만 자금뿐만 아니라 사업회사가 HC사에 직접 출자하는 것은 미츠이물산이 처음임. 사업제휴 형태로 일본에서의 판매권을 취득하고 우선 식품 기업에 판매를 시작하였음.
- 앞으로 일본에서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식물달걀을 원료로 하는 제품이 시장에 확산된 전망이며 향후 아시아 전체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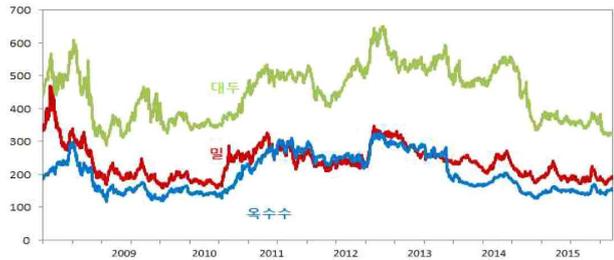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5. 10. 12.(시카고 선물거래소)

대두 수확 면적 손실로 일주일새 상승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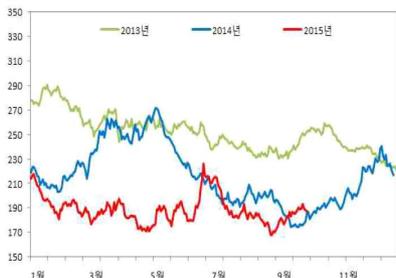
시카고선물거래소의 곡물선물가격

구분	기준일 ('15.10.9)	전일대비	전월평균 ('15.9)	2014 평균
밀	187.10	▼0.4%	179	216
옥수수	150.62	▼2.2%	147	164
대두	325.40	▲0.5%	324	4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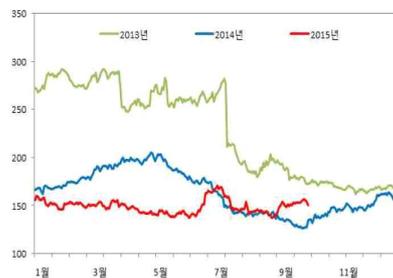
주)시카고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밀(적색연질밀; SRW), 옥수수, 대두의 근월물(밀, 옥수수: 12월물, 대두: 11월물) 정산가격임.

밀 선물시장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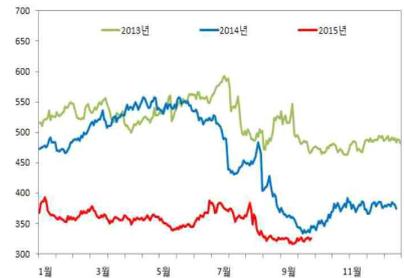
미국산 밀 선물가격은 슛커버링과 흑해지역과 호주지역 건조한 기후의 영향이 미국 밀 가격을 상승시킬 것으로 기대했으나 세계적 밀 풍작으로 인한 공급이 팽리를 이어가는데 방해 한 것으로 보임. 미국농무부(USDA)의 월간 수급보고서는 2015/16 밀 기말재고량이 낮을 것으로 전망함. 이집트는 러시아와 루마니아로부터 밀 수입을 하고 있으며 미국산은 체결 소식이 없는 것으로 보고됨.

옥수수 선물시장 상황



미국산 옥수수 선물가격은 월간 곡물 보고서에서 미국내 생산 및 재고량이 예상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되어 보름래 낮은 가격 수준을 기록하며 하락 마감함. 중서부 지역의 우호날씨 전망은 보다 나은 수확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어 가격에 하방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됨.

대두 선물시장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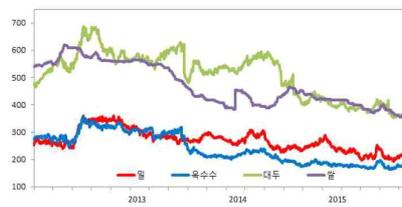


미국산 대두 선물가격은 기존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대두 생산량보다 USDA의 국내 생산 추정을 낮게 전망함에 따라 상승 마감함. USDA는 민영 수출입을 통해 36만톤의 대두를 중국에 판매했다고 보고함. 브라질 정부는 2015/16 대두 공급량이 약 1억 톤에서 1억2백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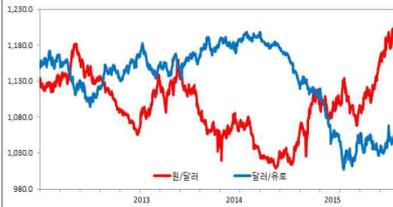
관련동향

- 걸프만 주요 곡물 수출가격은 보험세를 보였으며 중국의 국경절의 영향으로 수요가 지연돼 대두수출가격이 다소 하락
- WTI 유가는 미국 원유 시추기 수 감소 및 미 달러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상승한 반면, Brent 유가는 높은 수준의 공급 지속 우려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 출회 등의 영향으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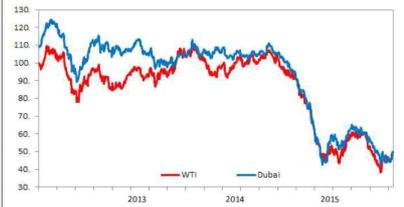
곡물 수출가격 (FOB)



환율



국제유가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곡물수출가격 (FOB)	밀	219	▼0.9%	환율	원/달러	1165.2	-
	옥수수	180	▼1.1%		달러/유로	1.1240	▼0.3%
	대두	361	▼1.1%	국제유가 (US\$/B)	WTI	49.63	▲0.4%
	쌀	368	▲0.5%		Dubai	49.99	▲3.3%

주) 1) 밀(US SRW Gulf), 옥수수(US 3YC Gulf), 대두(US Gulf), 쌀(Thailand 100% Grande B), WTI(11월물), Dubai(현물)

2) 기준일은 '15.10.8(수출가격), '15.10.8(환율), '15.10.9(국제유가)이며 자료출처(국제곡물이사회, 한국은행, 한국석유공사)의 업데이트 날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9. 사업신청 및 홍보 안내

◆ “쌀의 다양한 효능과 건강 지킴이” 특별전시

- 목 적 : 우리의 주식인 쌀의 종류 및 다양한 효능을 생산자 및 소비자들에게 보여 줌으로서 소중함과 가치를 일깨우며 농촌진흥청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함
- 주 제 : 『쌀의 다양한 효능과 건강 지킴이』
- 기 간 : 2015. 10. 12. ~ 10. 22.(2주간)
- 장 소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관 2층 특별전시관
- 내 용
 - 벼 품종 : 최고품질벼, 기능성벼, 난장이벼 등 생물 20여 품종
 - 벼 종자 : 흑·백·적·녹미 등 다양한 종자 15종
 - 쌀 가공품 : 쌀을 이용하여 만든 가공품 25종
 - 브랜드 쌀 : 전국 유명 브랜드 쌀 12종
 - 쌀의 정보 : 벼 농사의 유래, 쌀과 우리의 문화, 논농사가 주는 혜택, 벼의 일생 및 형태, 쌀의 영양적 우수성 등

◆ ‘벼가 도복했다’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 한글날 계기 국민과 소통하는 우리말 농업용어 109선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제569돌 한글날을 계기로 한자어, 일본식 표현 등 어려운 농업용어를 우리말로 바꿔 쓰도록 하여 농업 관계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 그동안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농업용어를 우리말로 바꿔나가는 노력이 이루어져 왔으나,
 - 아직까지 공문서나 연구기관 발간자료를 비롯하여 농업 현장에서 우리말 농업용어의 쓰임이 활발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 이에 농식품부는 이번 한글날을 기념하여, 농촌진흥청과 협의를 통해 현장에서 자주 쓰이는 농업용어 가운데 109개를 골라 우선적으로 순화하기로 하였다.
 - 즉,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실제로 우리말 농업용어 사용을 늘려 가겠다는 계획이다.
 - 또한 매월 ‘이달의 순우리말 농업용어’를 5개씩 선정하여 해당 단어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며, 우선 10월에는 흔히 쓰이는 말과 겹쳐 농업 용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한자어 5단어*를 선택해 집중 홍보하기로 하였다.

* 시비, 수도, 위조, 도복, 천식

- 농식품부는 앞으로 우리말 농업용어의 국민 사용 확산을 위해 농업인, 귀농·귀촌인들과 자주 접하는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의 농업용어 사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효과를 높이고,
-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우리말 농업 용어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를 진행하는 한편, 농업 관련 법령이나 행정규칙 등을 제·개정할 때에도 우리말로 바뀌나갈 방침이다.
- 농식품부의 국민과 소통하는 농업 용어 109개 및 ‘이달의 순우리말 농업용어’는 농식품부를 비롯하여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달의 순우리말 농업용어

예비 농업인들이 생소하게 느끼는 한자어로 된 농업용어들!
우리 모두 쉬운 우리말로 바꿔 사용해요.

연상 단어	기존 농업용어	순우리말 농업용어
다툼(X) 	시비 (施肥)	비료주기(O) 
수돗물(X) 	수도 (水稻)	논벼(O) 
가짜(X) 	위조 (萎凋)	시듦(O) 
태권도(X) 	도복 (倒伏)	쓰러짐(O) 
호흡기질환(X) 	천식 (淺植)	얕게심기(O) 



주간
전남농업정보 55호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업경영연구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 58213
Tel. 061-330-2583 Fax. 061-335-4199